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어 양상조동사의 쓰임 연구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을 중심으로-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 전공

맹 미 전

영어 양상조동사의 쓰임 연구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을 중심으로-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 전공

맹 미 전

인 준 서

맹미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습하는 양상조동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양상조동사에 대해 분석하고,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비율, 의미 분포가 영어 모국어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패턴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실 영어는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나 출제 방식에서의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시험을 위한 교수를 하게 되고 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 대학입학시험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위한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경환, 2001) 이렇게 많은 학습자들이 수능 외국어영역을 중심으로 학습하기에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양상조동사는 가급적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실제 양상조동사 사용 패턴을 반영해야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양상조동사의 용법에 노출되고 실제적인 의사소통기능을 익히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수능 외국어영역에는 어떠한 양상조동사들이 제시되었는지, 또한 이들은 어떠한 비율로 제시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양상조동사로의 치우침이 있다면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각 영역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종류와 의미 분포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에는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이것이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반영한 것인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능 외국어영역이 실제적 영

어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이론적 배경을, 2장에서는 연구 방법과 연구 도구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영어 양상조동사의 빈도 분석 결과와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 분석 결과, 영어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학자들은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shall, should, need, must, ought, dare의 12개를 양상조동사로 제시하였으며 수능 외국어영역에는 dare를 제외한 모든 양상조동사가 제시되어 왔다. 둘째, 영어 모국어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상조동사는 will, would, can, could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양상조동사는 수능 외국어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셋째,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대부분의 양상조동사들은 영어모국어사용자들의 사용 빈도 패턴을 반영하고 있었으나 can, could, must와 같은 일부 양상조동사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예를 들어,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은 can을 ‘가능성’과 ‘허락’의 의미 범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can은 ‘허락’의 의미 범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넷째, 수능 외국어영역에는 영어 모국어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양상조동사보다 약 40% 높은 비율의 양상조동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수능 외국어영역이 보다 실제적인 영어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에서의 차이는 수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능 외국어영역이 보다 진정성있고 실제적인 영어를 수록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영어 양상조동사를 자연스

럽게 익히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이론적 배경	3
1.2.1. 양상조동사의 의미	3
1.2.2. 조동사의 특성	3
1.2.3. 양상조동사의 특징	5
1.2.4. 양상조동사에 대한 학자들의 분류	6
II. 연구방법	10
2.1. 연구 자료	10
2.1.1.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류	10
2.2. 연구 도구	21
2.2.1. 양상조동사의 종류 비교 분석	21
2.2.2. 양상조동사의 빈도와 의미 분포 분석	22
III. 연구 결과	24
3.1. 양상조동사의 빈도 분석 결과	24
3.1.1.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	24
3.1.2. 수능 외국어영역에 나타난 연도별 양상조동사의 빈도	

비교 분석	27
3.1.3. 영어 모국어사용자들과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빈도 비교	31
3.2.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 비교 분석	33
3.2.1. can	33
3.2.2. could	36
3.2.3. may	40
3.2.4. might	42
3.2.5. shall	44
3.2.6. should	45
3.2.7. will	48
3.2.8. would	50
3.2.9. must	53
3.2.10. ought	56
3.2.11. need	57
3.2.12. dare	58
3.3.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의미 분포	58
3.3.1. 허가/능력/가능성을 나타내는 양상조동사	59
3.3.2. 의무/논리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양상조동사	63
IV. 결론 및 제언	66
참고문헌	74
Abstract	75

I. 서론

우리 사회가 점차 세계화, 국제화 되어감에 따라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영어의 기능은 의사소통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는 총괄적 목표 하에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구체적 하위 목표를 두고 있을 만큼 의사소통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고려하면, 대학 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일선 교사들은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나 출제 방식에서의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시험을 위한 교수를 하게 되고 학생들은 그들 나름대로 대학입학시험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위한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차경환, 2001)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사소통기능에서 양상조동사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최근 5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종류와 빈도, 의미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1.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종류를 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양상조동사와 비교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종류별 분포와 의미 분포를 비교하여 어느 특정한 양상조동사로의 치우침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는 어휘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양상조동사에 대해서 따로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여러 학자들의 양상조동사에 대한 구분을 종합하여 양상조동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매뉴얼’(2004)에 따르면, “외국어영역시험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시험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도구로 그 안에서 사용된 양상조동사의 종류와 의미 분포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양상조동사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1.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각 양상조동사가 어떠한 비율로 제시되었는가? 만약 특정한 양상조동사로의 치우침이 있다면, 이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와 일치하는가.

2.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의 경우,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각 영역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종류와 의미 분포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영역에서 어떤 양상조동사가 더 많이 제시되었는가.

3.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에는 치우침이 있는가. 있다면 이는 영어 모국어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패턴을 반영한 결과인가.

연구 문제 1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양상조동사를 기준으로, 대학수학

능력시험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양상조동사를 비교하고, 이를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빈도와 비교해보는 것이다. 연구 문제 2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비율을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연구 문제 3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쓰임을 의미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1.2. 이론적 배경

1.2.1. 양상조동사의 의미

조동사는 본래 본동사를 돕는 기능을 하면서 본동사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문법 형식과 의미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어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동사(auxiliary)는 문장에서 의문문,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되거나 진행형, 완료형을 나타낼 때, 혹은 수동태를 만들 때 쓰일 뿐만 아니라, 가능, 허가, 의무, 가능성 등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이러한 조동사 가운데 특히 가능, 허가, 의무, 가능성 등 문장의 명제에 반영되는 화자의 태도와 판단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양상조동사(modal auxiliary, 또는 Modal)라고 한다.

1.2.2. 조동사의 특성

양상조동사(modal auxiliary)는 조동사(auxiliary)의 하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조동사의 특징을 공유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조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모든 조동사는 한 가지 중요한 통사적 기능을 공통으로 갖는다. 즉, 시제가 제시되어 있는 동사구, 즉 정형동사(finite verb)를 가진 정동사절(finite clause)의 첫 번째 동사로써 조동사가 제시될 때, 이러한 조동사를 기능어(operator)라고 한다. (Quirk, Greenbaum, 1990) 이러한 조동사가 문장에서 기능어로 사용되었을 때 갖는 네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정동사를 부정할 때, 조동사만이 부정어 not과 결합할 수 있다.

- She **may** do it. → She **may not** do it.
- She saw the play. → *She **saw not** the play.

2.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만이 주어와 도치할 수 있다.

- He **will** speak first. → **Will** he speak first?
- He plans to speak first. → ***Plans** he to speak first?

3. 조동사는 정동사절을 긍정하기 위해 문장에서 제 1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

- Won't you try again? Yes, I **WILL** try again.
- You must speak to the teacher. I **HAVE** spoken to him.

4. 조동사만이 서술어를 대신하는 생략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생략된 부분을 반복해 써줌으로써 생략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Won't you try again? Yes, I **WILL**.
No, I **CANT**.

1.2.3. 양상조동사의 특징

양상조동사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1. 양상조동사는 원형부정사의 앞에 사용될 수 있다.

- You **will** ask the questions.
- They **might** have stolen it.

2. 양상조동사는 동사의 시제가 표현되어 있는 비정형(nonfinite)동사로
는 사용될 수 없다.

- You **may** be right.
- You ***maying** be right.
- You ***mayed** be right.
- You ***to may** be right.

3. 양상조동사는 현재시제에, 3인칭 단수주어와 함께 사용되어도 -s 형
태를 취하지 않는다.

- You **must** write. → She **must** write.
- You **like** to write. → She **likes** to write.

4. 양상조동사의 과거 형태는 현재를 의미할 수도, 미래를 의미할 수도 있다.

- I think he **may/might** be outside.
- **Will/Would** you phone him tomorrow?

1.2.4. 양상조동사에 대한 학자들의 분류

양상조동사의 분류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그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분류한 양상조동사의 수도 각각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Coates(1983), Ek and Robot(1984), Quirk and Greenbaum(1990), Huddleston and Pullum(2005)의 분류를 참고하였다. 학자들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ates(1983)

양상조동사(modal auxiliary): must, shall, should,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ought

준양상조동사(marginal modals): need, dare

유사조동사(quasi-modals): have to, be going to, be able to, be bound to

Ek and Robat(1984)

주조동사: be, have, do

양상조동사: can, could, may, might, must, shall, should, will, would,
had better, ought

준양상조동사: dare, need, used

유사양상조동사: be able (to), be bound (to), be going (to), appear
(to), happen (to), seem (to)

Quirk and Greenbaum(1990)

양상조동사: can, could, may, might, shall, should, will, would, must

준양상조동사: dare, need, ought, used to

유사조동사: have to, be about to, be able to, be bound to, be going
to, be obliged to, be supposed to, be willing to

Huddleston and Pullum(2005)

비양상조동사(non-modal auxiliary): be, have, do

양상조동사: can/could, may/might, shall/should, will/would, must,
ought, need, dare

위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모든 학자들이 can, could, may, might, shall, should, will, would, must를 양상조동사로 분류하였다. 준양상조동사의 분류에서는 일부 학자들에게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need, dare, ought의 경우가 그러한데, Coates(1983)의 경우, ought는 양상조동사로, need와 dare는 준양상조동사로 분류하였다. Ek and

Robat(1984) 역시 ought는 양상조동사로, need와 dare는 준양상조동사로 분류한 점에서는 일치하나, 이들은 used 역시 준양상조동사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Quirk and Greenbaum(1990)의 분류에서는 dare, need, ought 모두 준양상조동사로 분류되었으며, used to 역시 준양상조동사로 포함되었다. Huddleston and Pullum(2005)의 경우, ought, need, dare 모두 양상조동사로 분류하였으며, used는 양상조동사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양상조동사로 분류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상조동사	can
	could
	may
	might
	shall
	should
	will
	would
	must
	ought
준양상조동사	need
	dare

<표 1 : 양상조동사>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된 표 1의 양상조동사를 과연 학생들이 모두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제 7차 교육과정 해설서를 살펴보았다. 제 7차 교육과정 기본어휘표에는 학생들이 학습할 기본어휘에 대해서 알파벳순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양상조동사에 대해서는

1) ought의 경우, Quirk and Greenbaum(1990)을 제외한 나머지 세 학자들이 모두 양상조동사로 분류하였으므로 양상조동사로 포함한다.

언급한 바가 없다. 그러나 기본 어휘표에 제시된 어휘(총 2067개) 중에서 우리가 양상조동사라고 분류한 어휘들이 대부분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제 7차 교육과정 기본어휘표에는 이 연구에서 양상조동사라고 분류한 *can, dare, *may, *must, ought, *shall, *will, ought, need, dare가 제시되어 있다. 기본어휘표에서 could, might, should, would가 생략된 이유는 기본어휘표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 기본어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이 표에서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의 대표형만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어휘의 변화형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동일어의 의미 변화 및 문법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의 낱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어휘표에 따르면 비록 can과 could가 문맥상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어휘표 상에는 기본형인 can 만을 제시한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어휘표에는 could, might, should, would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과거변화 형태 역시 학생들이 학습하는 어휘에 포함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표 1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들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어휘표에 따라 학생들이 모두 학습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양상조동사들이 각각 어떠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 각 학자들마다의 분류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양상조동사의 분류 기준을 작성하고자 한다²⁾.

2) 제 7차 교육과정 기본어휘표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하는 어휘에 *로 표시하였다.

II. 연구 방법

2.1. 연구 자료

2.1.1.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류

· Coates(1983)의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류

양상조동사	의 미
can	가능성 (possibility)
	능력 (ability)
	허락 (permission)
could	가능성 (possibility)
	능력 (ability)
	허락 (permission)
	가정 (hypothesis)
may	가능성 (possibility)
	허락 (permission)
might	가능성 (possibility)
	가정 (hypothesis)
shall	의지 (volition)
	예상 (prediction)

should	약한 의무 (weak obligation)
	확신하는 추론 (confident inference)
	가정 (hypothesis)
	유사가정법 (quasi-subjunctive)
will	의지 (volition)
	예상 (prediction)
would	의지 (volition)
	예상 (prediction)
	가정 (hypothesis)
must	강한 의무 (strong obligation)
	확신하는 추론/논리적 필연성 (confident inference/logical necessity)
ought	약한 의무 (weak obligation)
	불확실한 추론 (tentative inference)

<표 2 : Coates(1983)의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류표>

Coates(1983)는 양상조동사의 의미를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서 그는 준양상조동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could, might, would, should와 같은 과거시제 형태는 독립적 어휘로 간주하여, 의미에 있어서도 그들의 현재형 양상조동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 Ek and Robot(1984)의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류

양상조동사	의 미		
can	능력 (ability)		
	허락 (permission)		
	가능성 (theoretical possibility)		
	기타용법 (other uses)	요청 (request)	
		감정의 표현 (surprise...)	
		속성 (quality)	
		문법적 의미 (grammatical meaning)	
could	과거	능력 (ability)	
		허락 (permission)	
		가능성 (theoretical possibility)	
		기타용법 (other uses)	요청/제안 (request, offers)
		감정의 표현 (surprise...)	
		속성 (quality)	
	문법적 의미 (grammatical meaning)		
	현재 (hypothetical meaning)	능력 (ability)	
		허락 (permission)	
		가능성 (possibility)	
		정중한 요청 (polite request)	

may	허락(permission)		
	사실에 입각한 가능성(factual possibility (uncertainty))		
	기타용법 (other uses)	소망(a wish)	
		의문문에서 정보요청 (asking for information)	
		관용적 표현(idiomatically (may well))	
목적부사절			
might	과거	허락(permission)	
		사실에 입각한 가능성 (factual possibility)	
		가정의 의미 (현재완료)	
		기타용법 (other uses)	소망(a wish)
			양보절/목적부사절
	관용적 표현(may well)		
	현재	사실에 입각한 가능성 (factual possibility)	
		실험적 제안(tentative suggestions)	
		명령(casual orders)	
		설득적 요청(persuasive requests)	
		부정적 감정의 표현	
shall	중립적 미래(neutral futurity)		
	의도(intention)		
	의지(willingness)		

	주장 (insistence)	
	의무 (obligation)	
	기타용법 (other uses)	의문문 (제안/충고요청)
		의문문 (do you intend to...?)
		의문문 (다른 사람의 봉사 제안)
수사의문문		
should	과거	중립적 미래 (neutral futurity)
		의도 (intention)
		의지 (willingness)
		주장 (insistence)
		의무 (obligation)
		추정 (putative)
		논리적 필연성 (logical necessity/probability)
		기타용법 (other uses)
	타인에게 봉사 제안	
	목적부사절 (for fear that~)	
	현재	의무 (obligation)
		논리적 필연성 (logical necessity/probability)
		추정 (putative)
		가정법 주절에서

		기타용법 (other uses)	조건부사절 정중한 질문
will	중립적 미래 (neutral futurity)		
	의지 (willingness)		
	의도 (intention)		
	기타용법 (other uses)	주장 (insistence)	
		예상 (predictability)	
지시 (instructions)			
would	과거	중립적 미래 (neutral futurity)	
		의지 (willingness)	
		의도 (intention)	
		기타용법 (other uses)	주장 (insistence)
			예상 (predictability)
	현재	정중한 요청	
		가정법 주절	
		I wish 뒤	
		seem, appear 등 뒤에서 불확실한 추정	
must	의무 (obligation/compulsion)		
	논리적 추론 (logical deduction)		
ought (to)	의무 (obligation)		

	논리적 필연성 (logical necessity/probability)
need	의무 (obligation)
	논리적 추론 (logical deduction)
dare	모험적 행위 (venture)
	무례함 (impudence)

<표 3: Ek and Robat(1984)의 양상조동사 의미 분류표>

Ek and Robat(1984)의 분류에서는 could, might, should, would와 같이 현재형 양상조동사(can, may, shall, will)의 과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양상조동사는 그 현재형 양상조동사가 갖는 의미를 동일하게 갖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외에 추가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분류에서는 could, might, should, would와 같은 과거형 양상조동사는 현재시제에서 쓰일 때와 과거시제에서 쓰일 때의 의미를 나누어서 분류하였으며, 또한 관용적 표현으로 쓰일 때의 용법과 특수 구문에서 쓰이는 용법까지 포함하였다. 이 점에서 Coates(1983)의 의미 분류보다 상세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자주 쓰이지 않는 양상조동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타항목으로 묶어서 상세히 분류하였다. 3)

· Quirk and Greenbaum(1990)의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류

3) Ek and Robat(1984)에서는 had better, used to 역시 양상조동사로 포함하여 그 의미에 대해서도 분류하였으나 had better와 used to는 이번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분류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양상조동사	의 미
can/could	가능성 (possibility)
	능력 (ability)
	허락 (permission)
may/might	가능성 (possibility)
	허락 (permission)
must	논리적 필연성 ((logical) necessity)
	의무 (obligation or compulsion)
need	논리적 필연성 ((logical) necessity)
	의무 (obligation or compulsion)
ought to	불확실한 추론 (tentative inference)
	의무 (obligation)
shall	예상 (prediction)
	의지 (volition)
should	불확실한 추론 (tentative inference)
	의무 (obligation)
	추정 (putative meaning)
will/would	예상 (prediction)
	의지 (volition)

might/could/would/ should	가정의 의미(hypothetical meaning)
	가설(tentativeness)
	정중함(politeness)
would/should	'mood markers' (if가 생략된 가정법)
dare	모험적 행위(venture)
	무례함(impudence)

<표 4: Quirk and Greenbaum(1990)의 양상조동사 의미 분류표

Quirk and Greenbaum(1990)의 분류에서는 shall/should를 제외한 현재형 양상조동사와 그 과거형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류를 함께 묶어 분류하였다. 이들은 과거형 양상조동사와 현재형 양상조동사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공유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Ek and Robot(1984)의 분류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 5)

다음으로 위의 세 학자들이 분류한 양상조동사의 의미를 종합하여 이 연구의 기준으로 사용할 양상조동사의 의미 범주를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양상조동사	의 미
-------	-----

4) Quirk and Greenbaum(1990)에서는 used to를 준양상조동사로 분류하여 그 의미에 대해서 분류하였으나, used to는 연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언급을 생략한다.

5) Huddleston and Pullum(2005)의 경우, 양상조동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분류하지 않았으므로 생략한다.

can	가능성 (possibility)
	능력 (ability)
	허락 (permission)
	기타용법 (other uses)
could	가능성 (possibility)
	능력 (ability)
	허락 (permission)
	가정 (hypothesis)
	정중한 요청 (polite request)
	기타용법 (other uses)
may	가능성 (possibility)
	허락 (permission)
	기타용법 (other uses)
might	가능성 (possibility)
	허락 (permission)
	가정 (hypothesis)
	기타용법 (other uses)
shall	의지 (volition)
	예상 (prediction)
	기타용법 (other uses)
should	의무 (volition)

	추론 (inference)
	가정 (hypothesis)
	기타용법 (other uses)
will	의지 (volition)
	예상 (prediction)
	기타용법 (other uses)
would	의지 (volition)
	예상 (prediction)
	가정 (hypothesis)
	정중한 요청 (polite request)
	기타용법 (other uses)
must	의무 (obligation)
	논리적 필연성 (logical necessity)
ought	의무 (obligation)
	논리적 필연성 (logical necessity)
need	의무 (obligation)
	논리적 필연성 (logical necessity)
dare	모험적 행위 (venture)
	무례함 (impudence)

<표 5: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류표>

위의 표 5에서 제시한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류표는 이 연구의 시작에

서 소개한 Coates, Ek and Robat, Quirk and Greenbaum, Huddleston and Pullulm의 양상조동사 분류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표 5에서 제시한 양상조동사의 의미를 기준으로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표 5의 분류표는 세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세 학자들 모두 could, might, should, would와 같은 과거형 양상조동사는 그 현재형 양상조동사와는 별도의 독립된 양상조동사로 분류하였으므로 그 기준을 따라 과거형 양상조동사와 그 현재형 양상조동사의 분류를 구분하였다. Ek and Robat(1984)의 경우 과거형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류에 있어서 현재시제에서 사용될 경우와 과거시제에서 사용될 경우를 나누어서 분류하였다. 그러나 Coates(1983)와 Quirk and Greenbaum(1990)의 경우는 과거형 양상조동사의 사용에 있어서 그 시제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Ek and Robat(1984)의 분류에서는 기타용법(other uses)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상세히 그 의미와 문법적 사용에 대해서 제시하였는데, 이를 표 5에서는 기타용법(other uses) 항목으로 묶어서 분류함으로써, 제시된 의미 이외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타용법으로 분류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양상조동사의 종류 비교 분석

수능 외국어영역에 나타난 모든 양상조동사들을 표 5에서 작성한 분류표와 비교하여 모든 양상조동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사용 빈도

와 종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수능 외국어영역은 현재 듣기 영역(1~17번)과 독해 영역(18~50번)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파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양상조동사가 어느 것인지를 비교해보고, 그 분포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양상조동사가 어떤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최근 5년간의 수능 기출문제를 이용하였다.

2.2.2. 양상조동사의 빈도와 의미 분포 분석

이 연구에서는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양상조동사의 빈도와 그 의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양상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모두 분석하였다.

양상조동사의 의미를 분류할 때는 표 5의 의미 분류표를 참고하였다. 양상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 의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다소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양상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포함, 그 문맥 전체를 고려하여 그 의미를 분류하였으며, 그래도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로 *can*의 경우 ‘가능성’과 ‘능력’의 경우 그 분류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그 양상조동사 뒤에 사용된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능력’과 ‘가능성’을 구분하였다. 즉, 뒤에 사용된 동사가 동작동사인 경우는 ‘능력’으로, 상태동사인 경우에는 ‘가능성’으로 분류하였다.

· Just as people search for books in bookstores, you **can** find and select what you want with a computer. - 능력(ability)

· In ordinary life, you **can** be very comfortable with modern technology. - 가능성(possibility)

둘째, can의 경우 ‘능력’, ‘가능성’, ‘허락’으로는 그 의미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 How **can** I help you?
- **Can** I help you?

의 경우가 그러했는데 이 경우 ‘능력’과 ‘허락’의 의미보다는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로 보아 ‘기타용법’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셋째, 과거형 양상조동사와 완료시제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정의 의미를 적용하여 모두 ‘가정’으로 분류하였다.

- They **should** have wiped it up before they left. - 가정
- We **could** have called the police before you left. - 가정
- But if I'd told you that, you **might** have panicked and none of us would have made it. - 가정

Ⅲ. 연구 결과

3.1. 양상조동사의 빈도 분석

이 장에서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와 수능 외국어영역에 나타난 양상조동사의 빈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 분포에 대해서 알아본다.

3.1.1.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를 알아보고,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사용 빈도와 일치하는지를 알아보았다. Biber(2002)의 LSWE Corpus 분석을 통해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LSWE Corpus는 1999년 약 7년간의 국제적 자료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로 Longman Spoken and Written English Corpus의 약자이다. LSWE Corpus는 약 4천만 개에 이르는 어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문법 형태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영국식과 미국식 대화체와 산문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지리적 방언과 그 용례에 대해서도 포함하였다. LSWE Corpus의 전체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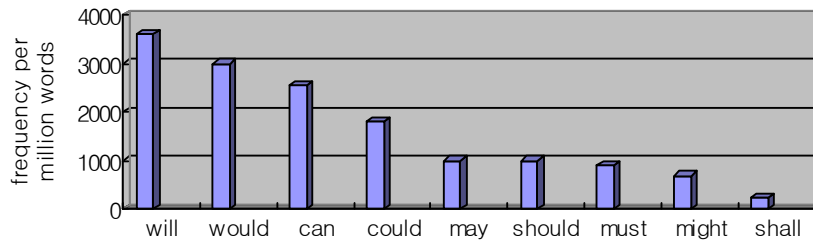
주요 언어 형식	텍스트 수	어휘 수
----------	-------	------

대화체(영국식)	3436	3929500
문학(미국식 & 영국식)	139	4980000
기사(영국식)	20395	5432800
학문적 텍스트(미국식 & 영국식)	408	5331800
방언 비교를 위한 미국텍스트		
대화체(미국식)	329	2480800
기사(미국식)	11602	5246500
추가 언어 사용 형식		
비담화적 화법	751	5719500
일반 산문	184	6904800
전체 corpus	37244	40025700

<표 6: LSWE Corpus의 전체 구성>

LSWE Corpus는 그 방대한 어휘의 양 이외에도, 그 corpus의 다양성과 균형성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이 corpus에는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 자료를 모두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어체와 문어체 역시 그 종류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문어체의 경우, 문학작품과 일반 산문, 기사 등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구어체의 경우, 일반 담화문과 비담화적 화법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4천만 여개의 어휘 샘플을 포함하고 있다. Biber는 이러한 LSWE Corpus를 이용하여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LSWE Corpus에 나타난 양상조동사의 빈도>



Biber의 조사에서 백만 어휘 당 사용된 양상조동사의 수는 약 13800개로, 약 1.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Biber는 양상조동사를 can, could, may, might, must, should, will, would, shall의 9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그림 1에서 역시 양상조동사는 9개만을 다루었다.

그림 1에서는 백만 어휘 대비 양상조동사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will이 약 3600개(약 0.36%)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상조동사로 나타났으며, would(약 0.3%), can(약 0.26%), could(약 0.18%)로 뒤를 이었다. will, would, can의 경우 그 사용 빈도가 모두 2500번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could 역시 약 1800개에 이르러 사용빈도가 높은 양상조동사로 나타났다. may(약 0.1%)와 should(약 0.06%)는 1000번 이하의 낮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shall(약 0.03%)의 경우 약 200번 정도의 빈도로 사용되어 약 3500번 이상의 높은 빈도로 사용된 will과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양상조동사의 사용 빈도에는 높은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형 양상조동사와 그 과거형 양상조동사의 사용 빈도를 비교할 때, 대체로 현재형 양상조동사가 과거형 양상조동사보다 빈번하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hould는 shall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예외적으로 과거형 양상조동사가 그 현재형 양상조

동사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3.1.2. 수능 외국어영역에 나타난 연도별 양상조동사의 빈도 비교 분석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can (%)	20 (33.9)	28 (33)	10 (15.6)	15 (28.3)	25 (33.3)	11 (18.6)	6 (12)	12 (20.7)	15 (23.1)	12 (28.6)
could (%)	7 (11.9)	6 (7.1)	7 (11)	2 (3.8)	5 (6.8)	4 (6.8)	5 (10)	4 (6.9)	5 (7.9)	2 (4.8)
may (%)	4 (6.7)	11 (13)	3 (4.7)	3 (5.7)	1 (1.3)	11 (18.6)	2 (4)	7 (12.1)	3 (4.8)	8 (19)
might (%)	2 (3.4)	1 (1.2)	1 (1.6)	3 (5.7)	.	3 (5.1)	.	1 (1.7)	1 (1.6)	2 (4.8)
shall (%)	.	.	.	2 (3.8)
should (%)	2 (3.4)	4 (4.7)	2 (3.1)	5 (9.4)	7 (9.3)	7 (11.9)	.	6 (10.3)	6 (9)	1 (2.4)
will (%)	14 (23.7)	21 (24.7)	32 (50)	13 (24.5)	19 (25.3)	7 (11.9)	20 (40.8)	18 (31.6)	25 (37.3)	5 (11.9)
would (%)	8 (13.6)	13 (15.3)	7 (11)	5 (9.4)	7 (9.3)	10 (16.9)	12 (24)	8 (13.8)	10 (15.9)	5 (11.9)
must (%)	1 (1.7)	1 (1.2)	1 (1.6)	.	3 (4)	3 (5.1)	4 (8)	1 (1.7)	2 (3.2)	4 (9.5)
ought (%)	1 (1.6)	.
need (%)	2 (3.4)	.	1 (1.6)	5 (9.4)	9 (12)	3 (5.1)	.	2 (3.4)	1 (1.6)	3 (7.1)
dare (%)

영역별 총 합	60	85	64	53	73	59	49	57	67	42
합계	145		117		132		108		109	

<표 7: 양상조동사의 연도별 비교>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양상조동사의 종류와 그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는 각 연도마다 쓰인 양상조동사의 총합 대비 각 양상조동사의 비율을 괄호로 제시하였다.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2개의 양상조동사가 모두 사용된 연도는 없었으며, 최근 5년간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 모두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양상조동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re의 경우가 그러했는데, dare는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와 독해 영역 모두에서 양상조동사로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었다. shall은 제 7차 교육과정 기본어휘표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학습할 기본적인 어휘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빈도는 최근 5년간 단 2번으로 아주 적게 나타났다. ought 또한 최근 5년간 듣기 영역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an과 will은 매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과 2006년, 2004년에는 can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2007년과 2005년에는 will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각 연도마다 쓰인 양상조동사의 양에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어휘 수 대비 양상조동사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	------	------	------	------	------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can	0.32	0.45	0.17	0.26	0.42	0.18	0.1	0.2	0.28	0.22
could	0.11	0.09	0.12	0.03	0.08	0.07	0.09	0.07	0.09	0.04
may	0.06	0.18	0.05	0.05	0.02	0.18	0.03	0.12	0.06	0.15
might	0.03	0.01	0.02	0.05	·	0.05	·	0.02	0.02	0.04
shall	·	·	·	0.03	·	·	·	·	·	·
should	0.03	0.06	0.03	0.09	0.12	0.12	·	0.1	0.11	0.02
will	0.23	0.34	0.54	0.22	0.32	0.12	0.34	0.3	0.46	0.1
would	0.13	0.21	0.12	0.09	0.12	0.17	0.21	0.14	0.19	0.09
must	0.02	0.02	0.02	·	0.05	0.05	0.07	0.02	0.04	0.07
ought	·	·	·	·	·	·	·	·	0.02	·
need	0.03	·	0.02	0.09	0.15	0.05	·	0.03	0.02	0.06
dare	·	·	·	·	·	·	·	·	·	·
영역 총합	0.97	1.37	1.09	0.9	1.22	0.98	0.84	0.98	1.24	0.78
양상조동사의 비율 (총 개수)	2.34 (145)		1.99 (117)		2.2 (132)		1.85 (108)		2.02 (109)	
전체 어휘수	6190		5881		5995		5844		5397	

<표 8: 수능 외국어 영역에 사용된 전체 어휘 수 대비 양상조동사의 비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2004)에 따르면, 수능 외국어영역은 수능이 처음 실시된 1994년에 비하여 어휘의 단락이 점차 길어져 한 단락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수가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

이상이 되는 단락이 포함되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1994년보다는 2004년의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어휘의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994년에서 2004년까지 약 10년간 증가한 총 어휘의 수는 2008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해왔음을 표 8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04년의 전체 어휘 수는 5397개였으며, 2008년의 전체 어휘 수는 6190개로, 2008년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어휘의 양이 약 15%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어휘 수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양상조동사의 수 역시 증가한 것은 표 7을 통해 확인되었다. 2004년 총 어휘 수에서 양상조동사는 107개로 이는 약 2.02%에 이른다. 2008년의 경우, 총 어휘 수에서 양상조동사가 차지하는 수는 144개로 이는 전체 어휘 수 대비 약 2.33%에 이른다. 즉, 전체 어휘 수 대비 각 연도마다 쓰인 양상조동사의 비율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4년의 경우, 전체 어휘 수 대비 양상조동사의 비율은 약 2.02%, 2008년은 2.34%로 약 0.32%로 근소한 차이만 나타났다. 이것은 표 8의 영역 총합에서 알 수 있다. 2004년 전체 어휘 수 대비 양상조동사의 비율은 2.02%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5년 그 비율은 약 1.85%로 다소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06년에는 다시 약 2.2%로 약 0.35%가량 증가했다. 이 비율은 다시 2007년도에는 1.99%로 감소했다가 2008년에 들어서 다시 약 0.35%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양상조동사는 전체 어휘 수 대비 약 2.08%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앞서 3.1.1.에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어휘 수 대비 양상조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인 약 1.4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앞서 Biber가 LSWE Corpus를 이용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 조사에서는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shall,

should, must만 양상조동사로 취급하였고, need, ought, dare는 양상조동사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자료의 동일한 비교를 위하여,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된 need, ought, dare를 제외한 전체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양상조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양상조동사 수	143	111	120	104	105
전체 어휘 수	6190	5881	5995	5844	5397
양상조동사의 비율 (%)	2.31	1.89	2	1.78	1.95

<표 9: need, ought, dare를 제외한 양상조동사가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표 9를 통해,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Biber가 분석한 것과 같은 9개의 양상조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약 1.99%에 이른다.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양상조동사의 비율인 1.47%를 기준으로,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비율(약 1.99%)을 비교하면,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에 비해 수능 외국어영역에서는 양상조동사가 약 35%이상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양상조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양상조동사의 비율보다 상당히 높다.

3.1.3.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와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빈도 비교

이 장에서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각 양상조동사의 사용 빈도와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실제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양상조동사가 수능 외국어영역에서도 높은 비율로 제시되어야, 수능 외국어영역이 영어가 사용되는 환경의 실제성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표 6을 통해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양상조동사는 will, would, can, could이며, 적게 사용되는 양상조동사는 shall, might, must 등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을 통해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된 양상조동사를 그 빈도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8년 듣기 영역: can, will, would, could, may, might, should, need,
must

'08년 독해 영역: can, will, would, may, could, should, must, might

'07년 듣기 영역: will, can, would, could, may, should, might, must,
need

'07년 독해 영역: can, will, would, should, need, may, might, could,
shall

'06년 듣기 영역: can, will, need, would, should, could, must, may

'06년 독해 영역: can, may, will, would, should, might, must, need

'05년 듣기 영역: will, would, can, could, must, may

'05년 독해 영역: will, can, would, may, should, could, need, might,
must

'04년 듣기 영역: will, can, would, should, could, may, must, need,

ought

'04년 독해 영역: can, may, will, would, must, need, might, should

위의 자료를 보면, 표 6에서 나타난 영어 모국어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양상조동사의 순서가 그대로 반영된 것은 2005년 듣기 영역밖에 없다. 그러나 영어 모국어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양상조동사 will, would, can, could는 그 순서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역시 많이 나타나는 양상조동사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 모국어 사용자가 가장 낮은 빈도로 사용하는 shall 역시 수능 외국어영역에서는 2007년 독해 영역에서만 단 한 번 제시되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는 대체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3.2.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 비교 분석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 분석에서는 연도마다 쓰인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려고 각 양상조동사 별로 그 의미 분포를 연도별로 나타내었다.

3.2.1. can

이 연구에서는 can의 의미 범주를 표 5를 기준으로 '가능성', '능력', '허

락’, ‘기타용법’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각각의 의미 범주에 해당되는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가능성

- On some occasions, it **can** also occur in the middle of an event.
- Above all, however, there **can** be hardly anyone who is not moved by some kind of music.
- Any contact between humans and rare plants **can** be disastrous for plants.

능력

- I **can't** go hiking all by myself.
- You **can** talk to each other in real time, looking at each other on a palm-sized phone.
- Not many mathematicians **can** work alone.

허락

- **Can** I use it with my membership card?
- Nothing **can** be checked or renewed without it.
- If you finish your homework, you **can** go to the movie.

기타용법

- Yes, you **can** trust me.

- *Can* I help you?
-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가능성’과 ‘능력’의 의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문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다음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살펴보고, 상태동사가 쓰인 경우, 수동태 문장인 경우, 주어가 사물인 경우는 편의상 ‘가능성’의 의미범주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기타용법에는 ‘요청’의 의미가 쓰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또한 ‘가능성’, ‘능력’, ‘허락’의 의미범주 아무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기타용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한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에서 사용된 *can*의 의미 분포는 다음과 같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가능성 (%)	3 (15)	12 (42.9)	2 (20)	8 (53.3)	2 (8)	6 (54.5)	2 (33.3)	3 (25)	1 (6.7)	1 (8.3)
능력 (%)	5 (25)	15 (53.6)	3 (30)	1 (6.7)	12 (48)	4 (36.4)	3 (50)	7 (58.3)	11 (73.3)	11 (91.7)
허락 (%)	7 (35)	·	2 (20)	5 (33.3)	5 (20)	·	1 (16.7)	·	2 (13.3)	·
기타 (%)	5 (25)	1 (3.6)	3 (30)	1 (6.7)	6 (24)	1 (9.1)	·	2 (16.7)	1 (6.7)	·
총합	20	28	10	15	25	11	6	12	15	12

<표 10: *can*의 의미 분포>

표 10을 작성함에 있어서 먼저 연도마다 쓰인 양상조동사의 총 합을

각각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으로 나눈 다음 이들의 의미 분포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can의 4 가지 의미 범주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can의 경우 최근 5년 내내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 모두에서 ‘가능성’과 ‘능력’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독해 영역에서 특히 그러한 분포가 뚜렷이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독해 영역에서 ‘가능성’과 ‘능력’의 비율의 합은 각각 96.5%, 60%, 90.9%, 83.3%, 100%로 대부분의 의미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독해 영역에서는 듣기 영역에 비해 ‘허락’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듣기 영역에서는 독해 영역과는 달리 ‘능력’과 ‘허락’의 의미 분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04년까지 듣기 영역에서 ‘능력’과 ‘허락’의 의미로 사용된 비율의 합은 각각 60%, 50%, 68%, 66.7%, 86.6%의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듣기 영역은 독해 영역에 비해 그 의미 분포에 있어서 한두 의미 범주로의 치우침이 적어, 상대적으로 고른 의미 분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듣기 영역에서는 2008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5년간 ‘능력’, ‘가능성’, ‘허락’의 의미가 모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독해 영역의 경우, 2007년을 제외한 모든 해의 외국어 영역에서는 ‘허락’의 의미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can의 의미가 독해 영역에서는 다소 편중되어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3.2.2. could

표 5에서는 could의 의미 범주를 ‘가능성’, ‘능력’, ‘허락’, ‘가정’, ‘정중함’, ‘기타용법’으로 구분하였다.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각 의미 범주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가능성

- In ancient Egypt, pitching stones was children's favorite game, but a badly thrown rock **could** hurt a child.
- Yes, I never imagined that all these old thing **could** be so interesting.
- This **could** be the best meeting I've ever had.

능력

- I tried to install it, but I **couldn't**.
- Now the reader **could** easily move backward in the text to find a previously read passage or browse between widely separated sections of the same work.
- Not only **could** they see nothing in front of them, but they were tired and ill and could not walk any more.

허락

- **Could** I take some lessons from him? - Yes, you **could**.

가정

- At twenty, I **could** have written the history of my school days with an accuracy which would be quite impossible now.
- I wish I **could**, but these days I'm too busy.

- We *could* have broken the bench on the way up.

정중함

- *Could* you be a substitute for me?
- *Could* you send some money to them as my present?
- *Could* you show me how to make bread?

기타용법

- When people began to bind books with pages that *could* be turned rather than unrolled like papyrus, the process of locating information changed.

‘허락’의 경우는 2007년 듣기 영역에서 한 차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용법’은 Ek and Roabt(1984)의 경우 ‘속성’의 의미를 띠는 경우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따라 ‘기타용법’으로 분류하였다. can과 마찬가지로 could 역시 ‘가능성’과 ‘능력’의 분류가 모호한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이 경우 역시 문맥의 의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래도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태동사가 쓰인 경우는 ‘가능성’으로, 동작동사가 쓰인 경우는 ‘능력’으로 분류하였다. Quirk and Greenbaum(1990)은 과거형 양상조동사가 완료시제와 함께 쓰인 경우 과거에 대한 가정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모두 ‘가정’으로 분류하였다. Quirk and Greenbaum(1990)은 ‘정중함’의 분류에 ‘정중한 요청’의 의미를 포함시켰으므로, 이 분류에서 역시 의미상 ‘정중한 요청’의 의미를 띠는 예문은 모두 ‘정중함’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

준으로 분류한 could의 의미 분포는 다음과 같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가능성 (%)	1 (14.3)	1 (16.7)	2 (28.6)	·	·	2 (50)	·	1 (25)	·	·
능력 (%)	2 (28.6)	3 (50)	1 (14.3)	2 (100)	2 (40)	2 (50)	2 (40)	2 (50)	1 (20)	2 (100)
허락 (%)	·	·	1 (14.3)	·	·	·	·	·	·	·
가정 (%)	1 (14.3)	1 (16.7)	1 (14.3)	·	3 (60)	·	·	·	·	·
정중함 (%)	3 (42.9)	·	2 (28.6)	·	·	·	3 (60)	1 (25)	4 (80)	·
기타 (%)	·	1 (16.7)	·	·	·	·	·	·	·	·
총합	7	6	7	2	5	4	5	4	5	2

<표 11: could의 의미 분포>

표 11을 통해 could는 ‘능력’의 의미 범주로의 편중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해 영역의 경우, 2008년과 2006년, 2005년의 경우, 각각 50%를, 2007년과 2004년의 경우는 각각 10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락’의 경우, 2007년 듣기 영역에서 단 한번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해 영역에서는 단 한 번도 제시된 바가 없었다. ‘허락’의 사용이 이렇게 낮은 비율로 나타난 이유는 ‘허락’의 의미 범주와 ‘정중함’의 의미 범주의 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상 ‘허락’과 ‘정중함’의 의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편의상 의문문이면서

주어가 you인 경우는 모두 ‘정중한 요청’의 의미를 지닌 ‘정중함’의 범주로 구분하고, 그 외의 경우를 ‘허락’의 의미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허락’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단 한번이나, ‘정중함’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중함’과 ‘허락’의 경우, 2005년 독해 영역에서 한번 ‘정중함’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듣기 영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중함’이나 ‘허락’의 경우 대체로 대화문에서 사용되는데, 독해 영역은 듣기 영역에 비해 대화문의 비중이 극히 적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2.3. may

표 5에 따른 may의 의미 범주는 ‘가능성’, ‘허락’, ‘기타용법’이다.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찾은 각 의미 범주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가능성

- Your mind **may** seem as blank as the paper.
- However, the result **may** be different when the features are separated from the context as shown in Figure B.
- Viewers **may** think that a subject is small because it is supposed to be.

허락

- **May** I speak to Sara Brown?

- If you reside in this area, you **may** get it free of charge.
- **May** I help you?

기타용법

- **May** I have your name and student ID number, please?

may에서 ‘기타용법’은, Ek and Robat(1984)는 화자의 소망을 나타낼 때, may well, may as well 등의 구문, 또는 의문문에서 정보 요청을 나타내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용법의 예문으로 제시된 May I have your name and student number, please? 의 경우는 청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요청하는 구문으로 ‘기타용법’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may의 의미 분포는 다음과 같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가능성 (%)	2 (50)	11 (100)	1 (33.3)	2 (66.7)	1 (100)	11 (100)	1 (50)	7 (100)	1 (33.3)	8 (100)
허락 (%)	2 (50)	.	1 (33.3)	1 (33.3)	.	.	1 (50)	.	2 (66.7)	.
기타용법 (%)	.	.	1 (33.3)
총합	4	11	3	3	1	11	2	7	3	8

<표 12: may의 의미 분포>

표 1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may는 대부분

‘가능성’의 의미로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독해 영역에서 그러한데, 독해 영역의 경우 2007년에 단 한 차례 ‘허락’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가능성’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 영역에서는 ‘가능성’과 ‘허락’이 최근 5년간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듣기 영역에서는 may가 ‘가능성’과 ‘허락’의 의미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기타용법’으로 분류되는 may well, may as well과 같은 구문이나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는 경우는 최근 5년간 제시된 바 없었으며, 의문문에서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예문이 2007년 듣기 영역에서 단 한 차례 제시되었다.

3.2.4. might

표 5에서는 might의 의미 범주를 ‘가능성’, ‘허락’, ‘가정’, ‘기타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찾은 이들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가능성

- But the one with just words **might** be boring.
- You **might** think you’re removing all the pesticide on the fruit when you wash it, but some chemicals are bound to remain on the surface of the peel.
- If he likes sports, then the one with the baseball and bat **might** be good.

가정

- But if I'd told you that, you *might* have panicked and none of us would have made it.
- It is no wonder few people ever imagined that the country's language *might* one day become popula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최근 5년간의 외국어영역에서 *might*는 ‘허락’과 ‘기타용법’으로는 사용된 바가 없었으며, 오직 ‘가능성’과 ‘가정’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의미 분포는 다음과 같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가능성 (%)	2 (100)	1 (100)	1 (100)	2 (66.7)	·	3 (100)	·	·	1 (100)	2 (100)
허락 (%)	·	·	·	·	·	·	·	·	·	·
가정 (%)	·	·	·	1 (33.3)	·	·	·	1 (100)	·	·
기타용법 (%)	·	·	·	·	·	·	·	·	·	·
총합	2	1	1	3	0	3	0	1	1	2

<표 13: *might*의 의미 분포>

표 13을 통해서, *might*의 대부분의 의미는 ‘가능성’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락’과 ‘기타용법’으로는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k and Robot(1984)에

따르면 ‘기타용법’에는 소망, 명령, 부정적 감정의 표현 등이 포함되지만 최근 5년간은 제시된 바가 없었다. 이 외에 ‘가정’의 의미가 2007년과 2005년 독해 영역에서 각각 한 차례씩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의 경우, ‘가정’의 의미로 한 번 제시된 것 외에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might가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다고 볼 수 있다.

3.2.5. shall

표 5에 따른 shall의 의미 범주는 ‘의지’, ‘예상’, ‘기타용법’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상

- Some of us have faith that we *shall* solv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b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for hydrogen engines, wind energy, or solar energy.
- Some of us have faith that we *shall* solve our food problems with genetically modified crops newly or soon to be developed.

Quirk and Greenbaum(1990)에 따르면 shall의 ‘의지’의 의미 범주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며, 주어의 의도가 내포된 경우를 지칭한다. ‘예상’의 의미 범주 역시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며, will을 대신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나 will 보다는 보다 격식을 차린 의미를 지닌다. Ek and

Robat(1984)에 따르면 ‘기타용법’의 의미 범주는 화자의 주장이나 의무, 타인에게 봉사를 제안하는 경우, 또는 수사의문문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shall이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의미 범주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의지 (%)
예상 (%)	.	.	.	2 (100)
기타용법 (%)
총합	0	0	0	2	0	0	0	0	0	0

<표 14: shall의 의미 분포>

Quirk and Greenbaum(1990)에 따르면 shall은 사용 빈도가 낮은 양상 조동사로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 그러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shall은 2007년 독해 영역에서만 단 두 차례 제시되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었다. 제시된 두 번의 예문 모두 ‘예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2.6. should

표 5에 따르면 should의 의미 범주는 ‘의무’, ‘추론’, ‘가정’, ‘기타용법’이

다.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should*가 사용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의무

- You ***should*** wear gloves while cutting vegetables.
- World leaders ***should*** have the vision to protect our environment.
- For example, we feel that a man in his thirties ***should*** act his age and not behave like an adolescent or an old man.

추론

- The answer ***should*** be multi, which means 'more than one'.
- It ***should*** be two years at least.
- This will, in some cases, enhance subtle information about light versus dark differences, hence the lack of detail in the eyes and mouth, and in other cases exaggerate such difference, as shown in the edges of what ***should*** be a smooth, gradually curving face.

가정

- I know I ***shouldn't*** have been doing that.
- They ***should*** have wiped it up before they left.
- We ***should*** have bought some drinks at the store.

기타용법

- So, what ***should*** we make for him?
- What ***should*** we do with it?

- It is natural that collections based on place of origin *should* develop.

should의 의미 용법은 다른 양상조동사의 의미 용법에 비해 그 구분이 뚜렷하다. should의 의미 범주 중 ‘가정’의 의미는 should가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된 경우를 포함하였다. ‘기타용법’에는 should가 for fear that ~ should와 같이 특정한 구문에서 사용된 경우와 가정법 주절에서 사용된 경우, 정중한 질문을 나타내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should가 사용된 의미 범주의 각 비율은 다음과 같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의무 (%)	1 (50)	2 (50)	1 (50)	5 (100)	3 (42.9)	6 (85.7)	.	5 (83.3)	4 (66.7)	1 (100)
추론 (%)	.	1 (25)	1 (50)	.	.	1 (14.3)
가정 (%)	1 (50)	.	.	.	4 (57.1)
기타용법 (%)	.	1 (25)	1 (16.7)	2 (33.3)	.
총합	2	4	2	5	7	7	0	6	6	1

<표 15: should의 의미 분포>

‘의무’의 의미로 사용된 should는 2005년 듣기 영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되었다. ‘의무’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의 의미는 2006년 독해 영역에서 처음 사용되

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매 년 한 번씩 사용되어 왔다. ‘가정’의 의미 역시 2006년 듣기 영역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앞서 could가 ‘가정’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2006년이었으며, might가 ‘가정’의 의미로 처음 제시된 것은 2005년이였다. should 역시 2006년이 되어서야 처음 ‘가정’의 의미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양상조동사가 ‘가정’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으로 추론하자면 2005~2006년쯤부터 제시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2.7. will

표 5에 따른 will의 의미 범주는 ‘의지’, ‘예상’, ‘기타용법’이다. 이를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지

- I'll take two adult tickets, please.
- Thank you. I'll wait for the call.
- Don't worry. I'll ask him to fix your guitar.

예상

- In the near future, I believe that most people *will* wear user-friendly computer equipment making their daily lives even more convenient.
- There *will* be time for revising and polishing any ideas you want to pursue later.

- However, if you cover up your flashlight, you *will* be surprised at how much light there is underwater.

기타용법

- It seems that his mother became ill during the night, and *will* have to stay in bed for some time.

Quirk and Greenbaum(1990)에 따르면 *will*은 화자의 요청이나 제안을 나타내는 경우 주로 ‘의지’로 사용되며, ‘예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타고난 특성을 지칭할 때 또는 보편적인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를 모두 지칭한다. ‘기타용법’에는 *will*이 화자의 지시를 나타내는 경우와 *seem*, *appear*와 같은 동사 뒤에서 불확실한 추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will*이 사용된 의미 범주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의지 (%)	5 (35.7)	·	12 (37.5)	1 (7.7)	5 (26.3)	·	7 (35)	·	6 (24)	·
예상 (%)	9 (64.3)	21 (100)	19 (59.4)	12 (92.3)	14 (73.7)	7 (100)	13 (65)	18 (100)	19 (76)	5 (100)
기타용법 (%)	·	·	1 (3.1)	·	·	·	·	·	·	·
총합	14	21	32	13	19	7	20	18	25	5

<표 16: *will*의 의미 분포>

듣기 영역의 경우 will은 최근 5년간 모두 ‘예상’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지’의 의미 범주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해 영역에서는 단 한 차례 ‘의지’의 의미가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상’의 의미로 사용되어 의미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듣기 영역이 ‘의지’와 ‘예상’의 의미 범주가 모두 사용된 반면, 독해 영역은 ‘예상’의 의미로 치우쳐져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2.8. would

표 5에 따른 would의 의미 용법은 ‘의지’, ‘예상’, ‘가정’, ‘정중한 요청’, ‘기타용법’이다. 이들이 사용된 예문을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지

- I have heard at least twenty performances of my favorite operas, and I **would** happily hear them twenty more times.
- I **would** suggest that you do something valuable and meaningful.
- I like it, but I **d** prefer one with more words on it.

예상

- Electric bulbs transmit light but keep out the oxygen that **would** cause their hot filaments to burn up.
-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to stay relaxed, because tickling

causes tension for most of us, such as feeling of unease.

- I think helping those children *would* make me happier than having a birthday present.

가정

- If someone was tickling you and you managed to remain relaxed, it *would* not affect you at all.
- Even if this neighbor were a saint, you *would* be likely to interpret his behavior in ways that fit your expectation.
- But if I'd told you that, you might have panicked and none of us *would* have made it.

정중한 요청

- I'd like to introduce the Delta Foundation representative, Ms. Joanne Douglas.
- On behalf of the school, I *would* like to extend our invitation to you and your family.
- Hi, I'd like to get a refund for my bike.

기타용법

- We need to see things as they are, not as we *would* like them to be.
- Now and again, she *would* glance up at the clock, but without anxiety, merely to please herself with the thought that each

minute gone by made it nearer the time when he would come.

- Outside, she **would** tend a small flower garden, which was the envy of the neighborhood.

would의 의미 구분에 있어서 ‘의지’와 ‘예상’, ‘가정’, ‘정중한 요청’의 의미 모두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구분에 있어서 먼저 ‘의지’의 경우, 주어가 1인칭이고 동사가 동작동사이며, 주어가 직접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로 한정하였다. ‘예상’의 경우는 ‘가정’의 의미와 구분이 어려웠는데, ‘가정’의 의미 범주에는 가정법 구문이 사용된 경우는 모두 포함하였으며, 과거의 사실에서 추측된 미래를 지칭하는 경우는 ‘예상’으로 구분하였다. would가 ‘would like to’와 같이 고정된 구문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would가 사용된 문맥에 따라 이를 ‘의지’, 혹은 ‘정중한 요청’으로 구분하였다. ‘기타용법’에는 화자의 의도와 주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seem, appear와 같은 동사 뒤에 사용되어 불확실한 추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would의 의미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의지 (%)	4 (50)	.	1 (14.3)	.	2 (28.6)	1 (10)	4 (33.3)	1 (12.5)	.	.
예상 (%)	3 (37.5)	11 (84.6)	1 (14.3)	3 (60)	3 (42.9)	7 (70)	3 (25)	4 (50)	6 (60)	1 (20)
가정	.	1 (7.7)	.	2 (40)	1 (14.3)	.	.	3 (37.5)	.	2 (25)

(%)										
정중한 요청 (%)	1 (12.5)	1 (7.7)	5 (71.4)	.	1 (14.3)	.	5 (41.7)	.	4 (40)	.
기타용법 (%)	2 (20)	.	.	.	2 (25)
총합	8	13	7	5	7	10	12	8	10	5

<표 17: would의 의미 분포>

would의 의미 분포는 표 17과 같다. 듣기 영역의 경우, 2005년부터 매년 ‘의지’의 의미로 일정한 비율이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다. ‘예상’의 의미 범주 역시 매년 일정 비율로 사용되어 왔으며, ‘정중한 요청’ 역시 매년 듣기 영역에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독해 영역의 경우, 2006년과 2005년 각각 10%, 12.5%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시된 바가 없어 독해 영역에서 ‘의지’의 의미 범주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상’의 의미 범주의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해왔다. ‘가정’의 의미 범주의 경우, 독해 영역에 비해 듣기 영역에서의 그 사용 비율이 아주 낮았는데, 2006년 듣기 영역에 비해 단 한 번(14.3%) 제시된 것 이외에는 최근 5년간 제시된 바가 없었다. ‘정중한 요청’의 경우, 듣기 영역에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제시되어 왔으나 독해 영역에서는 2008년 단 한 차례(약 7.7%) 제시된 것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의지’와 ‘정중한 요청’의 경우는 듣기 영역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되어 왔으며, ‘예상’과 ‘가정’의 의미는 독해 영역에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would의 의미 범주의 사용은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의미 범주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2.9. must

must의 의미 범주는 ‘의무’와 ‘논리적 필연성’이다.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된 must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의무

- However, we **must** realize that no one is obligated to change just to meet our expectations of how we feel that we should act.
- And though we **must** take the journey alone, and even if suffering is our only companion, soon enough we will become a butterfly, soon enough we will taste the joy of being alive.
- For the 3-day package, we **must** leave on a Friday.

논리적 필연성

- But I **must** be doing something wrong.
- He **must** have lost it.
- It **must** have slipped my mind.

must의 의미 구분은 다른 양상조동사의 의미 구분에 비해 단순했다. ‘의무’는 ‘~해야 한다.’로 해석되는 문장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논리적 필연성’의 경우, ‘~임에 틀림없다.’ 혹은 ‘~이었음에 틀림없다.’로 해석되는 구문을 포함한다. must의 의미 분포는 다음과 같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의무 (%)	.	1 (100)	.	.	.	2 (67)	4 (100)	1 (100)	1 (50)	3 (75)
논리적 필연성 (%)	1 (100)	.	1 (100)	.	3 (100)	1 (33)	.	.	1 (50)	1 (25)
총계	1	1	1	0	3	3	4	1	2	4

<표 18: must의 의미 분포>

must의 의미 분포 비율을 표 18을 통해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무'의 의미 분포 비율이 아주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독해 영역에서 '의무'의 의미는 약 75%를 차지하였으며, 2005년 독해 영역에서는 100%, 2006년 역시 6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2006년 듣기 영역을 시작으로 2007년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에서 모두 '의무'의 의미로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었다. 2008년이 되어서야 다시 독해영역에서 단 한 차례 제시되었으며, 듣기 영역에서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을 통해 추론할 때, must의 '의무'로서의 비중이 2004년에 비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리적 필연성'의 경우, 2004년 독해 영역에서 한 번 제시된 것 이후로는 독해 영역에서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었다. 반면, 듣기 영역에서 '의무'의 의미로서의 사용이 거의 없는 대신,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는 2005년을 제외한 모든 수능 듣기 영역에서 100%의 비율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must의 의미 범주는 '의무'와 '논리적 필연성' 모두 독해 영역에서 그 비중이 2004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듣기 영역에서는 '의무'의 의미는 2005년 이후로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에 따라 2006년부터 10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2.10. ought

ought의 의미 범주 역시 must와 마찬가지로 ‘의무’와 ‘논리적 필연성’이다. 이를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찾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

- You *ought* to go on a diet.

ought가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 중 제시된 것은 단 한 차례로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의무 (%)	1 (100)	.
논리적 필연성 (%)
총합	0	0	0	0	0	0	0	0	1	0

<표 19: ought의 의미 분포>

ought는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을 분석한 결과, 2004년 듣기 영역에서 단 한 차례 제시된 것 이외에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ought의 사용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2.11. need

표 5에서 제시된 need의 의미 범주 역시 must, ought와 마찬가지로 ‘의무’와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를 가진다.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need가 사용된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의무

- We **need** to get really expensive ones.
- They **need** to plant more trees on the street.
- One more thing you **need** to do is to join a club devoted to mathematics.

논리적 필연성

- There **needs** to be enough rain, or in some cases, irrigation.

Quirk and Greenbaum(1990)에 따르면, need는 주로 영국식 영어에서 must의 부정형이나 의문형을 나타내고자 할 때 대신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need는 홀로 사용되지만, 대체로 need는 to와 결합하여 ‘의무’와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를 갖는다. 수능 외국어영역에서도 need가 홀로 쓰여 의미를 갖는 경우는 제시된 바가 없었다. need의 의미 분포는 다음과 같다.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듣기	독해
의무 (%)	2 (100)	.	1 (100)	5 (100)	9 (100)	2 (66.7)	.	2 (100)	1 (100)	3 (100)
논리적 필연성 (%)	1 (33.3)
총합	2	0	1	5	9	3	0	2	1	3

<표 20: need의 의미 분포>

need는 2006년 독해 영역에서 한 번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로 제시된 것 이외에는 모두 ‘의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ought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 비중이 매우 낮았고, 매 년 ‘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독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와 영역에서 모두 100%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need는 ‘의무’의 의미 범주로의 편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3.2.12. dare

dare는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전혀 제시된 바가 없으므로 그 분석은 생략한다.

3.3.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의미 분포

3.3.1. 허가/능력/가능성을 나타내는 양상조동사

Biber는 양상조동사를 대화문에서 사용될 때와 학문적 텍스트에서 사용되었을 때를 대조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먼저 허가/능력/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로는 can, could, may, might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사용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영어 모국어자들의 허가/가능성/능력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Biber: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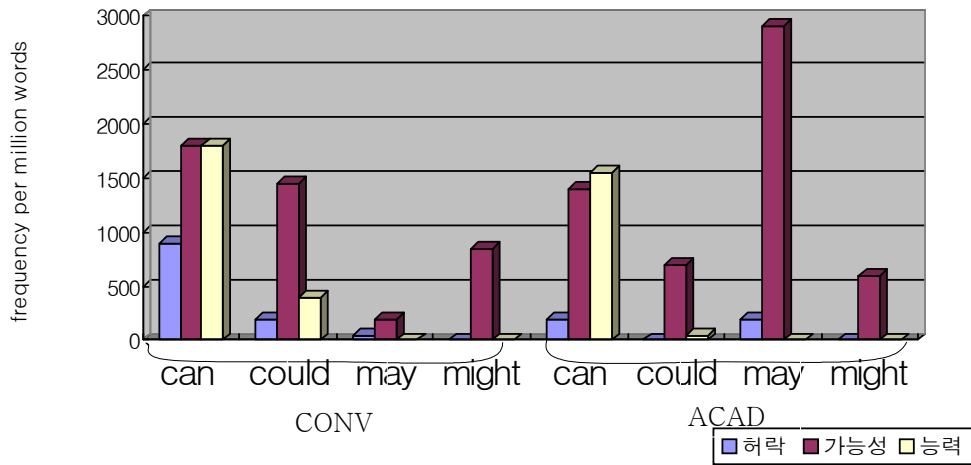


그림 2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화문과 학문적 텍스트에서 사용하는 허가/가능성/능력의 양상조동사의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학문적 텍스트에서, could, may, might는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대화문의 경우, 학문적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could와 might는 ‘가능성’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can은 학문적 텍스트와 대화문 모두에서 ‘가능성’과 ‘능력’의 의미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허락’의 의미는 대화문에서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can, could, might와는 달리, may는 대화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았다. 대화문에서 사용된 may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허락’과 ‘능력’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ight는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 모두에서 ‘허락’과 ‘능력’의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iber는 일반적으로 can 보다는 may가 ‘허락’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고 알려졌지만 LSWE Corpus 분석 결과, 실제로 may는 ‘허락’의 의미로는 드물게 사용되며, may보다는 can이 ‘허락’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림 2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허락/가능성/능력의 양상 조동사 의미 분포를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can, could, may, might의 의미 분포와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Biber의 LSWE Corpus 분석 결과에서 대화문은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과, 학문적 텍스트는 독해 영역과 비교하였다.

먼저 그림 2를 보면, can의 경우,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은 대화문에서 ‘가능성’과 ‘능력’의 의미를 동일하게 약 40%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으며, ‘허락’의 의미는 그 절반에 이르는 약 20%의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표 10을 통해 can은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에서 ‘능력’의 의미가 최근 5년간 ‘가능성’의 의미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85%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능력’의 의미가 많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은 can의 의미 분포 중 ‘허락’의 의미를 약 2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에서는 ‘허락’의 의미가 2006년 수능 이후로 계속적으로 ‘능력’의 의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can의 독해 영역과 학문적 텍스트의 비교에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은 ‘능력’의 의미를 약 49.5%, ‘가능성’의 의미를 약 44.4%의 비율로 사용하여, ‘능력’의 의미가 약 5%가량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외국어영역의 독해 영역에서 can은 2004년 수능 독해 영역의 경우, ‘능력’의 의미로 약 91.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제시되었으며, 2005년 독해 영역에서는 ‘능력’의 의미가 약 58.3%, ‘가능성’의 의미가 약 25%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독해 영역에서는 ‘가능성’의 의미가 ‘능력’의 의미보다 약 18% 높게 제시되었으며, 2007년 독해 영역에서는 ‘가능성’의 의미가 약 46% 이상 높은 비율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나 수능 외국어영역의 독해 영역에서는 can이 ‘가능성’과 ‘능력’의 의미 분포가 일관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can은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이 학문적 텍스트에서 낮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능 외국어영역의 독해 영역에서 역시 can은 ‘허락’의 의미로는 거의 제시된 바가 없어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could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은 대화문에서 ‘가능성’의 의미로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11과 비교한 결과,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에서 역시 ‘가능성’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문적 텍스트의 경우, could는 ‘허락’의 의미로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가능성’의 의미가 가장 높은 비유로 제시되었고, ‘능력’의 의미는 아주 낮은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능 외국어영역의 독해 영역에서 could는 ‘능력’의 의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능성’의 의미로 사용된 비중이 적게 나타나 실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패턴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은 may를 대화문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 7의 수능 외국어영역에 사용된 총 양상조동사 중에서 may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듣기 영역에서 may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양상조동사에 비해 낮은 비율(평균 약 4.3%)로 나타나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ay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경우, 학문적 텍스트에서 ‘가능성’의 의미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허락’이나 ‘능력’의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를 분석한 결과, 수능 외국어영역의 독해 영역에서도 may는 최근 5년간 ‘가능성’의 의미가 약 100%의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might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경우, 대화문과 학문적 텍스트 모두에서 ‘허락’과 ‘능력’의 의미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능성’의 의미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을 통해 might는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 모두에서 ‘가능성’의 의미가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그 이외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락/가능성/능력의 양상조동사 can, could, may, might를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대화문과 학문적 텍스트에서의 사용 빈도와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에서 사용된 의미 분포와 비교/분석한 결과, can은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에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허락’의 의미가 많이 제시되었으며, could는 독해 영역에서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경우, could를 ‘가능성’의 의미를 제외한 ‘능력’과 ‘허락’의 의미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능의 독해 영역에서는

‘능력’의 의미가 ‘가능성’의 의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실제 사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may와 might는 대체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수능 외국어영역의 독해 영역과 듣기 영역에서 사용된 패턴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의무/논리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양상조동사

Biber는 ‘의무’와 ‘논리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must와 should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must와 should의 의미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영어 모국어자들의 의무/논리적 필연성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 (Biber: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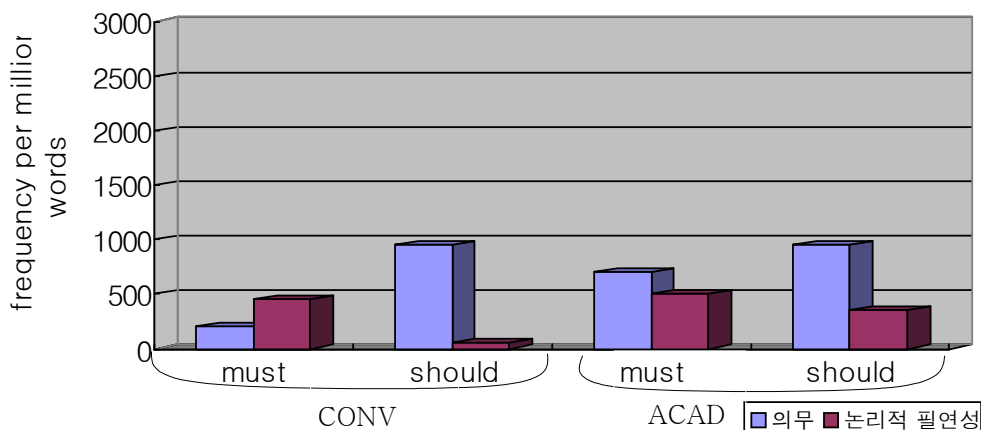


그림 3에서는 학문적 텍스트에서 ‘의무’와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로 사용된 양상조동사들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must는 대화문에서 ‘의무’의 의미로 많이 사용될 것이라 생각되는 것과는 반대로, 실제

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must를 대화문에서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ust가 ‘의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학문적 텍스트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iber는 must가 대화문에서 ‘의무’의 의미로 적게 사용되는 이유를 면대면 대화에서 사용될 때 must가 내포하는 강한 암시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은 ‘의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must보다는 보다 순화된 의미를 전달하고자 should 또는 have to를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 must는 대화문과 학문적 텍스트 모두에서 ‘논리적 필연성’의 비중이 같게 나타났지만, should는 대화문에서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학문적 텍스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를 표 15의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should와 표 18에 제시된 수능 외국어영역의 must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어 모국어사용자들은 대화문에서 should를 ‘의무’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에서 should는 2005년에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의무’의 의미가 평균 52%로 사용되었으며,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로 사용된 비중은 극히 적어,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은 학문적 텍스트에서 should를 ‘논리적 필연성’보다 ‘의무’의 의미로 약 3배 더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수능 외국어영역의 독해 영역에서 역시 should는 ‘의무’의 의미가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must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경우, 대화문에서 ‘의무’의 의미가 약 30%를, ‘논리적 필연성’이 의미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에서는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가 2006년 이래로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로의 치우침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의 의미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문적 텍스트에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은 must를 ‘의무’의 의미로 약 60% 가까이 사용하였으며,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가 약 40%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능 외국어영역의 독해 영역에서 must는 ‘의무’의 의미가 평균 85% 이상의 비율로 제시되고,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6) Biber는 위의 양상조동사에 대해서만 의미 분포를 제시하였으므로, 그 외의 양상조동사의 비교는 생략한다.

IV.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사소통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상조동사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종류와 빈도, 의미별 분포를 조사하였다. 또한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사용 빈도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양상조동사의 빈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아 수능 외국어영역이 실제로 영어가 사용되는 패턴을 반영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제 7차 교육과정 기본어휘표에는 어휘의 각 기본형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양상조동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Coates(1982), Ek and Robot(1984), Quirk and Greenbaum(1990), Huddleston and Plullem(2005) 등의 학자들이 분류한 양상조동사를 토대로 양상조동사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양상조동사와 비교하였다. 또한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 역시, 위의 학자들이 분류한 토를 종합하여 하나의 양상조동사 의미 기준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위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한 양상조동사와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양상조동사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12개의 양상조동사(can, could, may, might, shall, should, will, would, must, ought, need, dare) 중,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양상조동사는 모두 11개로,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dare는 전혀 제시된 바가

없었다.

둘째,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사용 빈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양상조동사는 will, would, can, could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shall은 가장 낮은 비율로 사용된 양상조동사였다.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역시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will, would, can, could가 많이 사용되는 양상조동사로 나타났으며, shall은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역시 매우 낮은 비율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나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 모두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양상조동사의 사용 빈도를 반영하여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능 외국어영역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어휘 수는 약 15% 증가하였으며, 그 안에서 사용된 양상조동사의 비율 역시 증가, 총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사용된 어휘 중 양상조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약 2.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LSWE Corpus를 통해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전체 어휘 수 대비 양상조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전체 사용 어휘 수 대비 양상조동사의 비율은 약 1.47%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양상조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약 2.08%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이 양상조동사를 사용하는 비율인 약 1.47%를 기준으로, 수능 외국어영역에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비율인 2.08%를 비교하면,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양상조동사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비율보다 약

40%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나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양상조동사가 더 많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⁷⁾ 따라서 영어가 실제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되는 양상조동사의 비율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에서 사용된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n은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 모두에서 ‘능력’과 ‘가능성’의 의미가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듣기 영역의 경우, ‘허락’의 의미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해 영역에서 can이 ‘허락’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의 의미 분포를 비교할 때, can은 듣기 영역에서는 독해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의미 분포를 보였다.

둘째, could는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 모두에서 ‘능력’의 의미로의 편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듣기 영역에서는 ‘정중함’의 의미 역시 매년 고르게 나타났지만, 독해 영역에서 could가 ‘정중함’의 의미로 사용된 비중은 극히 낮았다. could 역시 can과 마찬가지로 독해 영역보다는 듣기 영역에서 의미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셋째, may 역시 독해 영역보다는 듣기 영역에서 그 의미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독해 영역의 경우 2007년 독해 영역에서 단 한 차례 ‘허락’의 의미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성’의 의미로 제시되었다. 반면 듣기 영역의 경우 ‘가능성’과 ‘허락’의 의미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넷째, might는 may가 듣기 영역에서 고른 의미 분포를 나타낸 것에 비해,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 모두에서 ‘가능성’의 의미로의 치우침이 상당

7) Biber가 제시한 9개의 양상조동사만을 비교하면, 수능 외국어영역은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보다 약 35% 더 높은 비유로 양상조동사가 사용되었다.

히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허락’의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may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shall은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를 분석한 표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낮은 비율로 사용되는 양상조동사이다.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역시 shall은 아주 낮은 비율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실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빈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should는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 모두에서 고르게 ‘의무’의 의미로 최근 5년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추론’의 의미는 2006년 독해 영역에서부터 제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가정’의 의미 역시 2006년부터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could는 ‘가정’의 의미가 2006년 처음 제시되었으며, might가 ‘가정’의 의미로 처음 제시된 것은 2005년이였다. should 역시 2006년에서야 처음 ‘가정’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상조동사가 ‘가정’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만으로 추론할 때, 2005~2006년쯤부터 제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곱째, will은 듣기 영역에서 ‘의지’와 ‘예상’의 의미 범주가 모두 사용된 반면, 독해 영역에서는 ‘예상’의 의미로 치우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덟째, would는 듣기 영역에서 ‘의지’, ‘예상’, ‘정중한 요청’의 의미 범주가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독해 영역에서는 ‘예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약 50% 이상을 차지, 상대적으로 의미 분포가 ‘예상’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듣기 영역에서는 ‘의지’와 ‘정중한 요청’의 의미가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으며, ‘예상’의 의미는 독해

영역에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would는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에서 그 분포가 차이가 있다.

아홉째, must는 다른 양상조동사에 비해 최근 들어서 그 사용 빈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특히 독해 영역에서 두드러진 특징인데, 2006년 독해 영역을 끝으로 must는 ‘의무’의 의미가 제시된 바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을 통해 추론할 때, must의 ‘의무’로서의 비중이 2004년에 비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해 영역에서는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낮아져 왔으나, 듣기 영역에서는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관되게 높은 비율(100%)로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열 번째, ought 역시 shall과 마찬가지로 2004년 듣기 영역에서 한 차례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언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ought는 최근 5년간의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볼 때,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열한 번째, need는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 모두에서 ‘의무’의 의미 범주로 치우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두 번째, dare는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전혀 제시된 바가 없었다. 앞서 수능 외국어영역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상조동사의 사용 패턴을 반영하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dare가 최근 5년간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되지 않은 이유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낮은 빈도로 사용하는 양상조동사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수능 외국어영역에 사용된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를 영어 모국어 사용자가 대화문과 학문적 텍스트에서 각각 사용하는 양상조동사의 의미 분포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n은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에서 영어 모국어 사용자가 대화문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허락’의 의미가 높은 비율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나 영어 모국어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can의 ‘허락’의 의미 범주로의 치우침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가능성’과 ‘능력’의 의미의 비중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둘째, could는 독해 영역에서 모국어 사용자의 사용 패턴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영어 모국어 사용자의 경우, could를 ‘가능성’의 의미를 제외한 ‘능력’과 ‘허락’의 의미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능의 독해 영역에서는 ‘능력’의 의미가 ‘가능성’의 의미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uld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능성’의 의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져야 하며, ‘능력’의 의미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may와 might는 대체로 영어 모국어 사용자의 사용 패턴과 수능 외국어영역의 비율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should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는 대화문에서 ‘의무’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에서 should는 ‘의무’의 의미가 높은 비율로 제시되고,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로 사용된 비중은 극히 적어 영어 모국어 사용자의 사용 패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학문적 텍스트에서 영어 모국어 사용자는 should를 ‘의무’의 의미로 높은 비율로 사용하였으며, ‘논리적 필연성’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능 외국어영역의 독해 영역과 비교할 때,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능 외국어영역이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must는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는 달리,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에서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로의 치우침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무’의 의미 분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은 학문적 텍스트에서 must를 ‘의무’의 의미로 약 60%, ‘논리적 필연성’의 의미로 약 40%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능 외국어영역의 독해 영역에서 ‘의무’의 의미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논리적 필연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ust는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 모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의사소통기능을 위해 양상조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전제 하에 시작하였다. 수능 외국어영역은 영어 양상조동사가 실제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패턴을 반영하여 출제되어야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학습이 아닌, 자연스럽게 실제적인 영어 학습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제시된 양상조동사의 쓰임을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패턴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상조동사의 빈도, 의미 분포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수능 외국어영역은 대체로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양상조동사 사용 패턴을 반영하여 출제해왔으나, 일부 양상조동사의 경우, 영어 모국어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과는 큰 차이를 보여 수능에서 이러한 양상조동사의 비율

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양상조동사를 사용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 수 대비 양상조동사가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전체 어휘 수 대비 양상조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양상조동사의 빈도와 의미 분포는 연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며, 듣기 영역고가 독해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양상조동사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로 학습자들은 수능 외국어영역의 듣기 영역과 독해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양상조동사와, 그 의미 분포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양상조동사와 그 사용 패턴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단순히 대학 입학시험을 위한 학습이 아닌, 실제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기능을 위한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 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I)*,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서울: 교육부
- 문용. 2002. *고급 영문법 해설*. 서울: 박영사
- 오길숙. 2003. *영어 양상조동사의 쓰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차경환·박길수. 2001. *대학입학시험의 역사적 변천과정*. 서울: 영어교육 연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매뉴얼*.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Biber, D., Conrad, S., & Leech, G. 2002. *Longman Student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Essex: Longman
- Ek, Jan A. van. & Nico J. Robot. 1984. *The Student's Grammar of English*. Oxford: Basil Blackwell Limited.
- Coates. 1983. *The Semantics of Modal Auxiliaries*. London: Croom Helm LTD.
- Huddleston and Pullum. 2005. *A Student's Introduction to English Grammar*. Cambridge.
- Quirk R. and Sidney G. 1990. *A Student's Grammar of English Language*. Longman: Longman Group LTD.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English Modal Auxiliaries
- with a particular reference to the CSAT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

Mijeon, Maeng
Major in Englis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what the English modal auxiliaries are and to find out if they were presented in CSAT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use of English native speakers.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ly, we determined which were the central modal auxiliaries and how many of them were presented in the CSATs.

Secondly, we counted the number of modal auxiliaries presented in the CSATs and compared it with the frequency of modal auxiliaries used by native speakers. To do this, Biber's LSWE Corpus was used.

Thirdly, we classified the meaning of each central modal auxiliaries and counted their frequency. We also compared it with the frequency of each modal auxiliaries used by native English speaker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twelve central modal auxiliaries classified by several scholars were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shall, should, must, ought, need, dare'. For the last five years in the CSATs, all the central modal auxiliaries were presented except for 'dare'. 'dare' was not presented at all in the recent five years.

The most common modal auxiliaries which native English speakers use are 'will, would, can, could'. These are also the most common ones in the CSATS.

Most of the modal auxiliaries in the CSATs reflected the frequency of the use of native English speakers but some did not, such as 'can, could, must'. For instance, native English speakers use 'can' to express 'possibility' and 'ability' the most, while in CSATs, 'can' was used to express 'permission' the most.

The rate of modal auxiliaries presented in the CSATs was about 40% higher compared with the rate of modal auxiliaries used by native English speakers.

Nowadays CSAT is considered to be a 'test for test's sake' among many students. For CSAT to be more practical and reliable, it should reflect the real usage of native English speakers. By exposing students to the real usage of modal auxiliaries, they would be able to 'get the feel of' modal auxiliaries and ultimately improve their communication ability.